

* 이 용 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진도북춤의 흥
	III. 춤사위에 발현發現된 흥의 동작소動作素
	IV. 결론
	참고문헌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수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논문투고일 : 2015.04.30. 심사일 : 2015.05.30. 게재확정일 : 2015.06.5.

An analytic study on the motion element of Jindo-drum-dance

138

Lee, Yong-hee
Sunggyungwan University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xtrac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analyze it by making the visible moving structure of the dancing motion and the structural diagram of the motion element of the dance in order to find the emotion of fun of Jindo-drum-dance. Thus, video data and picture material and activities of a board member for the society for the preservation of Jindo-drum-dance is used for this study. The motion element of the Jindo-drum-dance has been classified into that of hands and arms, that of legs, and that of legs on the basis of the analytic frame presented by Jung Byung-Ho and Lee Byung-Oak. The motion element of hands and arms has horizontality(horizontal lifting), inclination(incline lifting), raising, bending, circle(turning), and legs has been divided into walking, skipping, turning, and the body motion element has side(side appearance).

The author considered the originality of the dancing motion of Jindo-drum-dance and added cross, peak, shaking, kicking, filling, and contracting to form a new analytic frame of the motion element.

First, the author extracted the motion element, which was frequently shown according to the dancing motion, while Jindo-drum-dance was performing in order to find whether it had the element of fun or not. The result was as follows;

There were 19 dancing motions and 101 motion elements, and the order of more frequency was raising 77 > walking 77 > joining 76 > filling 67 > bending 59 > contracting 42 > horizontality 39 > pause 34. Thus the highest frequent motion element was raising and walking 77, while the lowest frequent motion element was peak 5. As a result, because raising and walking have the highest frequency, the whole flow of Jindo-drum-dance is to be found as dynamical with many dynamic motions, so Jindo-drum-dance could be regarded as a work with the rhythm of fun.

On the foundation of the above analysis, we can find that Jindo-drum-dance not only presents the flavor adding free changes.

<key words> Jindo-drum-dance, fun, motion element

주요어) 진도북춤, 흥, 동작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진도북춤에 나타나는 흥의 정서를 밝혀내기 위해 가지적으로 움직이는 춤사위를 동작소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진도북춤의 분석 대상은 박병천류의 진도북춤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자료와 사진자료**¹⁾ 등을 활용하여 춤사위 구성과 동작소 구조표를 만들어 구조적 특징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진도북춤의 선행 연구에서는 시각적 분석을 통해 북춤의 특징, 춤사위 및 장단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었던 반면, 흥興의 정서에 내재된 동작소 분석 연구는 간과되고 있다.

흥의 정서를 진도북춤의 핵심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은 예술미학을 다루는 주요 개념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핵심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과제 해결을 위해 북춤에 관한 각종 문헌, 논문저술 및 전통예술, 예술미학 서적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여 진도북춤에 내재된 흥의 정서를 논증하였다. 진도북춤은 음악적 장단에 맞추어 신체와 정신이 흥취에 의해 하나로 몰입되는 내면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춤이다.

이는 **북소리**²⁾에 나오는 흥겨움을 연희자의 개성에 맞춰 즉흥적으로 흥겹게 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진도북춤의 흥과 멋이 음악과 무용에서 일치된 관계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춤³⁾에 관한 선행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북춤을 구성하고 있는 무북, 무구, 반주 음악, 춤사위 연구를 통한 특징 분석과 다른 춤과의 비교분석 연구 및 미의식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진도북춤의 연구들에서 특히, 흥의 정서는 단순히 흥으로만 도출하였다.

1) 진도북춤을 분석하기 위한 비디오 자료와 사진자료는 2013년 11월 21일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공연장에서 공연된 8분 작품자료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2) 필자는 북이 단순한 리듬악기, 반주악기의 기능을 초월해 춤을 이끄는 주체적 무구의 구실로써 진도북춤의 다양화에 크게 공헌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3) 북춤은 무용과 음악과의 밀접한 형성과정에서 대체로 기록이 확실한 궁중무용은 그 연구영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속무용을 포함한 다른 분류의 춤에서는 그 연구가 저조한 편이다. 특히, 민속무용의 출현은 자연발생적이고 전승형태도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연원을 밝히기도 어렵고 그 원형을 고찰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까지 진도북춤의 연구들에서 흥은 단순히 흥으로만 도출하였으며, 특히 흥의 정서로 본 동작소 분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춤사위에 발현된 흥의 동작소 분석 논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진도북춤 연구의 동작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도북춤 춤사위에서 발현된 흥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 하였다. 진도북춤의 ‘흥’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첫째, 북의 소리와 춤사위가 혼연일체가 되어 흥을 상승시켜주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둘째, 3박자의 엇박춤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즉흥성으로 인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흥의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셋째, 규격대로 빈틈없이 추는 것이 아니라 무자舞者의 개성과 기분을 살리듯 추기 때문에 현장성과 어울림을 통해 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II. 진도북춤의 흥

진도북춤은 심장의 고동과 맥박을 꿈틀거리게 하는 놀라운 힘과 흥겨움을 가진 신명의 춤이다. 이 신명나고 흥겨운 춤은 단순히 생활상의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기약하려는 삶의 춤이며, 예술적 꿈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몸부림이라 볼 수 있다. 진도북춤은 춤사위와 북가락으로 흥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합이 되듯 상·하체의 작용이 맞물리어 흥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도북춤의 흥은 내면적인 생명의 흐름과 에너지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도북춤의 흥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첫째, 자연 친화성 둘째, 내면적 즉흥성 셋째, 상생적 역동성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자연과 사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상극으로 작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생명체를 유지해 나간다. 특히 진도북춤은 자연에서 생명력을 얻은 춤으로 논과 밭, 산, 바다 등에서 일하고 노래하며 추는 춤으로 자연 친화성이 존중되는 춤이다. 자연 친화성은 움직임에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평범한 움직임을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진도북춤을 보면 동작의 화려함이나 현란함보다 수수함과 소박함과 같은 자연스러운 몸짓을 추구하며 인위적으로 어떤 형식에 맞추어 내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전체의 흐름은 자연의 자태를 조화롭게 드러내듯 단일한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 혼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가 융합된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진도북춤은 울곧게 뻗은 나무보다 한번 휘청 휘어간 줄기에서 아름다움

을 느끼는 것과 같이 어딘가 힘이 있고 모자란 데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에서 흥의 미감이 활성화되는 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내면적 즉흥성을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진도북춤은 매번 춤을 출 때마다 같은 춤이 없으며, 춤추는 목적과 춤추는 사람의 몸에 담겨 있는 기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 즉, 진도북춤에서 기질이 없으면 향수자의 마음을 흡수할 수 없고, 자기의 감정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의 교류나 에너지 발산 등은 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자 동기가 되는 것이다. 진도북춤은 음악적 장단에 맞추어 갈 필요가 없이 춤과 음악의 틀을 벗어나는 즉흥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즉흥성은 흥이 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춤을 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진도북춤의 흥은 주변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진도북춤은 규격대로 빈틈없이 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춤꾼의 흥 대로 개성과 기분을 살려 표현하면서 모든 것들이 가변되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과 현장에 따라 어울림을 통해 즉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생적 역동성의 특성은 움직임에서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움직임과 멈춤, 호흡의 맺고 풀림의 과정 속에서 역동성은 이러한 상극적인 것을 상생적으로 변용시키며 드러나는 것으로 이것은 음과 양의 상호작용으로 자연이 지닌 조화와 균형을 위한 형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신지현, 2010: 16). 진도북춤은 정靜 속에 동動이 있고, 가벼움 속에 무거움이 있는가 하면 약함 속에 강함이 있는 춤이다. 진도북춤의 움직임은 상반적으로 정적인 것과 가벼운 것, 약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동적인 것, 무거운 것, 강한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춤가락과 춤동작의 기본형식이 긴장상태의 현상인 맺는 움직임과 이완상태의 현상인 풀어짐의 움직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춤동작이 맺는 동작만 있을 때는 그 동작이 강靑의 연속이기 때문에 동작이 거칠고 딱딱하며 소란스럽기만 하다. 반면 어르는 동작만을 연속할 때는 그 동작이 정靜의 연속이기 때문에 밋밋하고 힘이 없으며, 생동감이 감소되어 조용함만 있을 뿐 미적 감흥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생적 역동성은 맺고, 어르고, 풀어짐의 움직임 원리에 바탕으로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속에 드러난다 하겠다. 이러한 예는 진도북춤에서 격렬했다가 유연해지고 유연했다가 격렬해지면서 잠시 밋는 춤사위의 강약 조절(이미영, 2004: 149)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진도북춤이 작은 동작에서도 유난히 역동적이고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마음속에 내재된 심념력(心念力) 때문인데, 호흡을 들이 마시면서 긴장 상태에 마음의 힘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도복춤의 역동성은 움직임의 질이 외형적·시각적인 측면보다는 내면적인 마음속에 내재된 생명력으로 발휘되어 역동성이 깃들어 있다.

Ⅲ. 춤사위에 발현된 흥의 동작소

진도복춤 춤사위는 정병호(1981: 12)와 이병옥(1997: 117-136)의 동작소 분석틀을 근간으로 보완된 동작소 기준표를 작성하여 분석하고, 동작소가 시작 지점부터 중간과정에 거쳐 끝지점에 이르기까지 동작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정병호와 이병옥이 제시한 동작소에는 손팔동작소, 다리동작소, 동체동작소로 구별된다. 우선 손팔동작소에는 평(平:수평들기), 사(斜:비껴들기), 거(擧:들기), 굴(屈:굽히기), 원(圓:돌리기)이 있고, 다리동작소에는 보(步:걸기), 도(跳:뛰기), 회(回:돌기)가 있으며, 동체동작소로는 측(側:옆모습)으로 분류되어 있다.

필자는 기존의 동작소 틀에서 교(交), 봉(峰), 요(搖), 축(蹴), 광(橫), 축(縮)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동작소의 명칭과 설명을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1. 동작소의 명칭 설명

손팔동작소 명칭	
동작소 명칭	손팔동작소
평(平)	수평으로 양팔을 드는 동작
사(斜)	사선으로 양팔을 비껴드는 동작
거(擧)	손이나 팔을 드는 동작
낙(落)	호흡이나 몸동작이 아래로 향하는 동작
굴(屈)	손이나 팔을 굽히거나 구부리는 동작
원(圓)	손이나 팔을 돌리거나 이동 경로에서 원을 만드는 동작
교(交)	북가락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동작
봉(峰)	꽃봉우리 모양을 만드는 동작
요(搖)	어깨의 호흡을 툭툭 떨어뜨리거나 어르는 동작

다리동작소 명칭	
동작소 명칭	다리동작소
보 (步)	천천히 걸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는 동작
도 (跳)	경쾌하게 또는 무겁게 뛰는 동작
회 (回)	발을 기점으로 축을 두고 몸을 도는 동작 움직임 경로에 따라 도는 동작
굴 (屈)	다리 또는 무릎을 굽히거나 구부리는 동작
원 (圓)	이동 경로에서 원을 만드는 동작
축 (蹴)	발을 옆으로 차는 동작

동체동작소 명칭	
동작소 명칭	동체동작소
정 (停)	춤사위를 하고 난 후 멈추어 정지하거나 머무르는 동작
연 (連)	장단과 장단사이를 이어주는 동작
광 (擴)	무대 공간의 사용범위가 큰 동작
축 (縮)	호흡을 안으로 모으거나 응축되는 것과 같이 동작이 축소되거나 작은 동작
측 (側)	옆모습의 동작

진도북춤 춤사위의 독창성을 감안하여 정병호의 동작소 중 광(擴:확산)의 의미는 살풀이 수건이나 승무의 장삼을 뿌리는 동작의 확산이 아닌 역동적인 움직임의 공간사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확대되어 커지는 확산의 의미로 변형시켰다. 반면 반대로 축(縮:작게 응축되기)은 호흡을 안으로 모으거나 응축되는 것과 같이 동작이 축소되거나 작은 동작을 축축의 의미로 분류하였다.

교(交:북가락을 교차하는 동작)는 ‘겨누기사위’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며, 북가락을 치며 X자를 만드는 동작으로 북가락을 칠 때의 경쾌한 소리와 함께 진도북춤의 독특한 춤사위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봉(峰:봉우리 모양)은 굿거리장단에서 나오는 ‘반꽃봉우리사위’와 ‘꽃봉우리사위’에 나오는 춤사위로 손끝에 호흡을 풀어 서서히 손등과 팔이 위로 올라가면서 꽃봉우리 모양을 만드는 춤사위로 이 춤사위 역시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축(蹴:발을 옆으로 차는 동작)은 ‘옆으로 발차기사위’에 나오는 춤사위로 한국춤에서 발을 차는 동작이 없는데, 진도북춤에서만 유일하게 발을 차는 동작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독특한 춤사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광(擴:확산), 축(縮:작게 응축되기), 교(交:북가락을 교차하는 동작), 봉(峰:봉우리 모양), 축(蹴:발을 옆으로 차는 동작)을 추가하여 동작소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다음은 본고에서 규정한 진도북춤의 춤사위(이용희·황명자, 2013:1109-1110)를 19가지로 선정하여 함유되어 있는 동작소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진도북춤 춤사위의 동작소

		진도북춤 춤사위의 동작소																		
춤사위/빈도	동작소	평	사	거	낙	광	축	봉	교	굴	요	보	정	축	측	원	연	회	도	
바람막이 사위		2	2	2									2					2		
외바람막이 사위		2	2	2	2								2					2		
굴신 바람막이사위		1	1	1						1		1						1		
겨누기 사위		4		8		6			4	1		4			4		4	2	3	
계걸음 사위		5		4		4		4		8		4			4		4		4	
좌우/전후갈동 말동사위		16		4	7		16			6		16	3		6		16	1	2	
나비춤사위		2	2	2	2					2							2	2		
눈썹 그리기 사위		2		2	2		2			2		2	2			2	2	2		
새끼꼬기사위		4		4	4		4		4	4		4	4				4		4	
복채 돌려잡기 사위		4	4	4		4				4		4	2		4		4	4		
어깨춤사위		15	15	15			15				15	15	15							
반꽃봉오리 사위		4		4	4	4		4	4	4		4				4	4			
꽃봉오리 사위		1		1	1		1		1			1	1					1		
품앗이 사위		12	4		12		12			2	8		12	2		4		12		
열십자 사위		1	1		1	1					1		1					1		
옆으로발차기 사위		4				4				4					4				4	
가위치기사위		4			4		4			4								4	4	
지그재그뛰기 사위		8	8	8	8		8							4				8	8	
다듬이질사위		10				10				10		10						10		
합계		101	39	27	77	13	67	42	5	14	59	15	77	34	8	22	6	76	16	29

- ① 춤사위는 총 19가지로 합계는 101개이다. 빈도수가 높은 동작소의 순서배열은 거舉 77 = 보步 77 > 연連 76 > 광橫 67 > 굴屈 59 > 축縮 42 > 평平 39 > 정停 34의 순이며, 빈도수가 낮은 동작소는 도跳 29 > 사斜 27 > 측側 22 > 회回 16 > 요搖 15 > 교交 14 > 낙落 13 > 축蹴 8 > 원圓 6 > 봉峰 5 등이다. 따라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동작소는 거舉와 보步가 77이며, 빈도수가 가장 낮은 동작소는 봉峰 5이다. 결과적으로 거舉와 보步의 동작소가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진도북춤의 전체 흐름은 동적인 움직임이 많아

역동적이며, 흥의 요소가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② 주요 춤사위로 양팔벌려들기 거舉와 걸음을 걷는 보步는 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속되어지는 동작은 연連 76, 이어서 확대시키는 광擴은 67, 무릎굴신인 굴屈은 59 등이다. 비중이 가장 적은 춤사위의 동작소는 요搖 15, 축縮 12, 원圓 6, 봉峰 5 등으로 나타났다.
- ③ 주요 동작소 보步는 77, 연連은 76, 광擴은 67, 굴屈은 59, 도跳는 29로 총 308의 합계가 나와 편중과 집중현상을 보이며, 정停은 34, 낙落 13, 축縮은 12이고, 이어서 축蹴은 8로 미미하게 나왔다. 즉, 원칙적으로 동작을 이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동작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는 동작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동작에 내재한 강한 생명력으로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함으로써 움직임이 커지고 동적인 동작과 굴신, 뛰는 동작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다.
- ④ 손팔동작은 거舉 77, 굴屈 59, 평平 39, 사斜 27, 교交 14, 낙落 13, 원圓 6, 봉峰 5 동작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搖는 15이다. 진도북춤에 있어 특히, 사斜의 동작소는 4방향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춤사위가 잘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다.
- ⑤ 요搖의 동작은 어깨춤에서 전달되는 파장을 말하며, 마음속에서 동요되어지는 감정의 ‘요搖’를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어르는 사위 또는 어깨춤 사위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요搖의 동작은 느리고 빠른 장단의 굿거리장단과 자진모리, 동살풀이장단에는 총 15번의 출현빈도수가 보였으며, 정중동의 3요소에 맞추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양팔을 벌려들거나 내리는 동작의 횟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손팔동작 중 거舉는 양팔을 들고 추는 춤사위가 대부분 많기 때문이다.
- ⑥ 다리동작소에 보步는 77, 도跳는 29, 무릎굴신인 굴屈은 59, 회회는 16, 축蹴은 8, 원圓은 6 등이다. 즉 진도북춤은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발동작이 많고 이어서 뛰는 동작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다리동작소에는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어 역동적인 면이 표출되어 힘을 기교로써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⑦ 바람막이 사위, 외바람막이 사위, 굴신바람막이 사위의 동작소에는 주로 평平, 거舉의 팔을 벌리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다. 또한 정停의 동작소에는 굿거리장단의 고요하고 긴장된 심성을 호흡 내부에 지니며 정지하는 동작으로 절제된 모습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⑧ 겨누기 사위와 계걸음사위에는 팔·발동작의 춤의 요소와 가락의 요소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맺고 푸는 동작의 요소가 분명히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리동작소에는 보步, 회回, 도跳가 있으며, 손팔동작소에는 평平, 거擧, 사斜, 교交의 동작소가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사위에는 다양한 팔동작과 디딤새 폭의 변화로 흥을 일으키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⑨ 좌우/전후 갈등말등 사위는 동살풀이라는 빠른 장단 속에 추어지는 춤사위로 갈 듯 말 듯, 펼 듯 말 듯,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듯 자유분방하면서도 해석적인 멋을 지닌 춤사위이다. 따라서 시공간적 변화에 따라 춤사위의 흐름이 이어 붙였다 길게 하기도 하고, 춤이 장단보다 빨리 나가기도 하고, 때론 멈추기도 하면서 다양한 공간미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손팔동작소에는 사斜가 있으며, 공간적으로 여러 이동이 있으므로 광擴이 있다. 또한 다리동작소에는 동적이면서 역동적인 굴屈, 보步, 도跳의 동작소가 있다.
- ⑩ 나비춤 사위는 물 흐르듯이 유연하면서도 연속적인 동작으로 나비가 팔랑거리듯 나는 모습을 형상화하듯 손팔동작소에는 평平, 거擧, 사斜의 동작소가 있으며, 다리동작소에는 굴屈, 회回의 동작소가 있다.
- ⑪ 눈썹그리기 사위와 새끼꼬기 사위의 손팔동작소에는 사斜, 거擧, 낙落, 교交의 동작소가 있으며, 다리동작소로는 굴屈, 보步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동작소이다. 새끼꼬기 춤사위는 농사꾼이 짚으로 새끼를 꼬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진도북춤의 춤사위 중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며 마지막 맺음 전에 뛰는 도跳의 동작소가 있다.
- ⑫ 북채돌려잡기 사위는 호흡과 장단이 짧으며, 몰입되고 응결되는 구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북채돌려잡기 사위의 손팔동작소에는 평平, 거擧, 사斜의 동작소가 있으며, 다리동작소에는 굴屈, 회回, 보步가 있다. 동체동작소는 돌아가며 옆모습의 동작을 2번 보여주기 때문에 측側의 동작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⑬ 반꽃봉우리사위와 꽃봉우리사위는 어르고 푸는 내적인 정靜의 동작으로 손팔동작소에는 거擧, 사斜, 교交, 봉峰이 있으며, 다리동작소에는 굴屈, 보步, 연連이 있다.
- ⑭ 품앗이 사위는 다양하고 화려한 춤사위의 기교보다는 소박하고 질박한 멋이 엿보이는 춤사위로 서로 주거나 받거나 소통의 관계를 이루어주는 춤동작이다. 손팔동작소는 평平, 거擧, 교交이며, 다리동작소에는 보步, 정停,

굴뚝이 있으며, 동체동작소로는 옆모습의 측側 동작소가 있다.

- ⑮ 열십자사위에는 굿거리장단 춤사위의 미적 흐름이 여유롭고도 부드러우며 몰입되는 정서를 이끄는 것이 특징이다. 손팔동작소에는 평주소와 거舉의 동작소가 있으며, 다리동작소는 굴뚝, 보步, 회회가 있다.
- ⑯ 옆으로 발차기, 가위치기, 지그재그 뛰기 사위, 다듬이질 사위에는 수족상응의 춤사위로 활발하게 이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빠른 박속에서 진행이 되므로 탄력적인 반동과 뛰는 도약 동작이 많으며, 디딤새의 폭이 넓고 크다. 따라서 이 춤사위의 동작소에는 발동작이 주가 된다. 다리동작소로는 굴뚝의 동작소와 뛰는 도跳의 동작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표 3. 진도북춤 춤사위의 동작소 빈도수

		진도북춤 춤사위의 동작소 빈도수																	
동작소	평	斜	舉	落	橫	縮	峰	交	屈	搖	步	停	蹴	側	圓	連	回	跳	
춤사위/빈도	평	시	거	낙	광	축	봉	교	굴	요	보	정	축	측	원	연	회	도	
합계	101	39	27	77	13	67	42	5	14	59	15	77	34	8	22	6	76	16	29

이상으로 진도북춤의 동작소를 분석한 결과 진도북춤의 춤사위 동작소에는 거舉, 보步, 연連, 광橫, 굴뚝의 동작의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진도북춤에 나타나는 독특한 동작소는 광橫, 축縮, 교交, 봉峰, 축蹴으로 나타났으며, 진도북춤의 상징으로 흥과 관계성이 높은 동작소는 거舉, 광橫, 보步, 축蹴, 도跳, 회회 등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작들은 외형상 동작이 크게 보이는 동작소들로 감정을 발산시키는 양적이며, 감정의 긴장을 풀기 위해 경쾌하고 시원스럽게 나타나는 동작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도북춤은 몸전체로 느껴지는 한과 환희의 흥을 추구하는 정중동의 춤으로 무대공연예술로 다듬어지면서 무대화에 맞게 재창조한 춤이며, 동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한을 소화해나가는 흥의 춤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진도북춤 춤사위의 동작소를 연동적 질량으로 초점화하여 흥의 요소와 흥의 정서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동작소를 분석하였다. 우선 첫째, 동작소를 살펴봄에 있어 총 19가지의 춤사위를 정병호와 이병옥이 제시한 동작소의 틀을 활용하여 손팔동작소, 다리동작소, 동체동작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진도북춤 춤사위의 독창성을 감안하여 동작소 중 광(橫:확산), 축(縮:작게 응축되기), 교(交:북가락을 교차하는 동작), 봉(峰:봉우리 모양), 축(蹴:발을 옆으로 차는 동작)을 추가하여 동작소 분석 틀을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진도북춤의 춤사위 동작소에는 거(擧), 광(橫), 굴(屈), 보(步), 도(跳)의 동작의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동작들은 외형상 동작이 크게 보이는 동작소들로 구성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도북춤의 춤사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동작소는 동적인 춤사위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진도북춤에 나타나는 독특한 동작소는 광(橫), 축(縮), 교(交), 봉(峰), 축(蹴)으로 나타났다. 진도북춤의 상징으로 흥과 관계성이 높은 동작소는 거(擧), 광(橫), 보(步), 축(蹴), 도(跳), 회(回) 등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감정을 발산시키는 양적인 측면과 감정의 긴장을 풀기 위한 경쾌하고 시원스럽게 나타나는 동작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진도북춤은 팔이나 발을 드는 거(擧), 손·발을 구부리는 굴(屈), 동선 및 동작의 크기 확산의 광(橫), 발로 뛰는 동작인 도(跳)의 동작소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진도북춤에는 흥의 요소 및 흥의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진도북춤은 경쾌하고 역동적인 춤이라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무겁고 정적이며 느린 섬세한 지향의 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도북춤은 미적 동작을 통해 자유롭게 변화를 주려는 멋을 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움직임과 정지의 조화로서 투박하고 질박한 흥의 멋을 나타내주는 춤이라 할 수 있겠다.

진도북춤의 뿌리와 원형을 탐색하는 것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바탕으로 진도북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어 질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옥(1989). "한국 전통기구에 나타난 '흥과 멋'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연정(1996). "승무와 살풀이에 나타나는 움직임의 원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나일주, 성은모(2005).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학습계시판에 나타난 메시지 유형별 정서적 표현의 내용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학회지 제 1호**, 49-70.
- 백해경(2000). "진도북춤의 춤사위 연구-박병천류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은경(1994). **흥의 미학**, 한국고전문학회지.
- _____(2006).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 보고서.
- 신지현(2010). "한국춤에 내재된 흥의 미적 가치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난수(2010). "심미정서로서의 흥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미영(2004). "진도북춤 춤사위에 나타난 미적 특징 - 박병천류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회, **한국무용사학회지 제 3호**, 149.
- 이병욱 · 임정화(1997). "송파산대탈춤 중 깨기춤에 함유된 동작미 분석",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지 제 22집**, 117-136.
- 이용희 · 황명자(2013).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용 진도북춤 모형 탐색", 교과교육학연구회, **교과교육학회지 제 17권 4호**, 1109-1110.
- 이현진(2003). "박관용류와 박병천류의 진도북춤 춤사위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미희(1989). "한국춤에 나타난 신명에 대한 연구: 민속춤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병호(1981). **춤사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_____(1985). **한국춤**, 열화당.
- _____(1991). **한국인의 문화의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_____(2004). **한국무용의 미학**, 집문당.
- 정은희(1999). "한국민속춤에 내재된 공동체적 신명에 관한 심리적 접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홍은주(2003). "한영속과 이매방 살풀이춤의 비교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